

머리말

작금의 정신동향 내지 문화시류(文化時流)를 '전환기'(轉換期)로 규정할 때 이런 전환의 경향 가운데는 분명히 서양적(西洋的)인 것에서 동양적(東洋的)인 것으로의 전환이 있다.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반성에서 대안으로 나온 자연중심적 세계관, 물고기자리인 양(陽)의 종교로부터 물병자리인 음(陰)의 종교로의 전이를 외치는 New Age사상, 그리고 정신과 물질, 인간과 신의 간격을 부수고 통합하려는 전일주의(全一主義)의 지평 등등의 대두는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양사상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분명코 시대반성적인 것이고 따라서 시의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의는 우리의 것에 대한 점검이므로 자기 반성이 되고, 또 현재의 의식과 삶의 사상사적 근원을 다루는 것이므로 근원 반성도 수반하는 것이 된다.

Hegel은 고대 동양사회는 서양과 달리 황제와 같은 한 사람만 자유하고 여타 모든 사람은 노예로 있는, 즉 자유의 정신이 자기 전개를 하지 않은 사회라고 보았다. 그는 회랍에서는 Anaxagoras 같은 이들에게서 밝은 '이성'(nous), 즉 '정신'이 발달되었으나 에집트나 바벨론, 인도와 중국에서는 '정신'의 개념은 형성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 피안의 세계만 지향하는 어두침침한 '혼'(psche)의 세계만 발견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간과 그 지성을 객체시(客體視)된 자연대상에서 분리시켜, 주객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눈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을 통채로 살펴 그 원리를 궁구하려 한 동양세계가 이성이나 학문이 미발달된 세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계관만 다를 뿐이지 동양에도 예나 지금이나 학문이 있고 사상이 있다. 물론 동서양의 학문이나 그 사관(史觀)에는 큰 괴리가 있다. 서양의 철학이 시냇물처럼 굽이굽이 흐른다면, 동양의 사상은 연못물처럼 이따금씩 들어오고 나오는 물길은 있지만 그저 고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동양사상에는 현대적인 것이 미미하다. 하지만 사상의 정체성(正體性)이랄까, 아니면 중심(中心)이랄까 하는 것이 있음은 분명하다. 요즈음 화두(話頭)가 되어 있는 다양한 사상은 ‘옛것’의 새로운 적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溫故知新’이라는 말을 즐겨 새겼는지 모를 일이다.

“동양사상에 관한 기독교세계관적 고찰”이라는 제하의 이번 호는 전통적이면서 중요한 주제인 동양적 성선설, 또 현금 우리 사회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기철학,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인 선불교를 다루게 되었다. 말하자면 한(韓)·중(中)·일(日)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다룬 셈이다. 브니엘고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부산의 국제통으로 유명하신 박성기 목사님은 ‘중국의 성선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은 허위요 허상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구원은 오로지 초월적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함을 역설하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변증을 시도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론(氣論)”이란 논문에서 경북대 철학과와 장윤수 선생님은 치밀한 개념규정 및 주제규명을 필두로 전통적 기론을 약술하고 제반 항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기론이 범신론과 인간 절대주의의 성격을 지님을 지적하고, 특히 이것이 가치중립적인 심신수련법으로만 간주되지 않아야 함을 충고하고 있다. 주일 미국 선교사로서 동경에서 <언약세계관연구소>(Covenant Worldview Institute)를 이끌고 있는 Ralph A. Smith 목사님은 그간 ‘동서사상의 만남’ 등과 같은 논지를 펼치면서 종교다원주의 내지 혼합주의의 관점을 펼치려던 과

거 일본 체류 사상가들과는 달리 언약신학에 대한 확신있는 증언과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영희 선생님의 서평은 근자 우리 사회에 학문세계 안팎으로 주목받던 글을 기독교세계관적 관점에서 평한 유익한 글이다.

일반논문으로 실린 글 가운데 논자의 “최근의 학문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은 서양의 학문사를 개요적으로 설명한 후 Karl Popper와 Thomas Kuhn 이후로의 학문이론과 과학철학을 조감하고 기독교적 비판과 그 학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의 한동근 교수님의 글인 “현대경제학은 청지기 정신을 저해하는가”는 최근 경제학의 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살피면서, 그것은 결국 타락의 결과인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와 물질주의를 도리어 극대화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청지기 정신의 대립자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언적인 성경적 경제학 이론의 수립을 필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도 이렇게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엄선된 논문을 싣게 되었는데,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공동체는 기독교 학문의 전당을 다 건립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학문함도 성경적 진리와 원리 위에 견고히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상과 학문의 길에는 늘 무수한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언어와 세계관의 차이 같은 자연적 장애물은 물론이고,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사상이나 글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고 목소리만 크게 내리는 새로운 야만주의 같은 인공적 장애물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의 전당’ 수립에 무관심하거나 피곤하여 중도포기하

거나, 또는 힘을 모으지 않는 일일 것이다. 아니면 더 심하게 이물질들을 섞는다든지 또는 지어져 가는 집을 허무는 일일 것이다. 장애물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이랄까 아니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戰場)이랄까, 이러한 학문의 들판에서 이제 우리 모두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학문에 있어 우리의 시도가 어설퍼 보이고, 또 걸음걸이가 작아 보일지라도 이런 수고들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진리확장에는 거보(巨步)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열매가 됨은 물론이다. 날이 추워가니 길 가는 우리들은 더욱 켜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1997년 저무는 한해를 보며

전 광 식